

체육관련학 전공자의 역량과 노동시장 분석

조민행^{*}, 고의석¹, 한건수¹
¹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The competency and employ ability prospects of students majoring in sports & recreation.

Min-Haeng Cho^{*}, Wi-Suk Ko¹, Gun-Soo Han¹

¹Department of Sport & Leisure, Daegu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체육관련 전공자들의 역량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구조를 조사하는데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등급으로 공시한 각 학교별 자료를 분석해보면,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2등급에 속한 학교는 1개교이며, 3등급에는 11개 학교가, 4등급에는 32개교가, 5등급에 15개교가, 6등급에 5개교가 속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우수한 학교의 경우 소재지가 수도권이거나 체육교사의 교원자격증이 부여되는 사범계열학과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을 세분화 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능력 3.30, 신체능력 3.88, 사회성 3.61, 경영능력 3.21, 정서능력 3.52로 나타났다. 국가자격에 의해 고용되는 직종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 스포츠강사, 퍼스널트레이너 등 비정규직의 취약한 고용구조로 연결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mpetency and employ ability of labor market for college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sports and recreation studies. It was revealed that the stanine score 2 achievement is 1 college, the stanine score 3 achievement is 11 colleges, the stanine score 4 achievement is 32 colleges, the stanine score 5 achievement is 15 colleges, and the stanine score 6 achievement is 5 colleges.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colleges locating in large cities or providing with certification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ing are performed highly academic achievement record. In an analysis of competency test among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sports & recreation, or physical education, the mean scores of physical, social, emotional, cognitive, and management competencies among the students are 3.88, 3.61, 3.52, 3.30, and 3.21, respectively. This study is about preparation: getting it right at the beginning; giving the right training and educating to the right people to create an effective workforce for the delivery of sports and recreation market. This understanding, can be used as a guide to policies and possible actions related to training and recruitment.

Keywords : competency, employ ability, sport & recreation,

1. 서론

고등교육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비용의 인적자원을 생산에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였으며, 노동력에 의한 생산 증대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자 과학화, 기술화 및 지식

화로 생산력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에는 고등교육의 성장과 발전이 기여하였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1,2,3].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졸업정원제, 대학정원 자율화의 포괄승인제,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 여러 정책을 도입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정책변화로 대학의 체육

이 논문은 201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0557).

*Corresponding Author : Min-Haeng Cho(Daegu University) Tel: +82-53-850-6092 email: cho6447@hanmail.net

Received June 19, 2015

Revised (1st August 3, 2015, 2nd August 5, 2015)

Accepted August 6, 2015

Published August 31, 2015

학 및 스포츠관련학과 수가 증가하였으며, 체육관련학 분야를 전공하는 인력이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일례로, 교육과학기술부[4] 자료에 따르면 체육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은 238개, 일반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수는 393개에 이르며, 전문대학의 체육계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9,841명이고, 일반대학은 16,882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적 성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되곤 하는데, 특히 스포츠산업 부문의 성장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등의 하위 분야에 종사하는 선수, 지도자, 교육자, 산업체 종사자를 양성하고자 고등교육기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칭송받았던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오히려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5,3], 이러한 측면에서 체육 및 스포츠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의 고등교육도 노동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전문인력의 전문화 및 전문성 결여,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고용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제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6,7,8,9]. 특히, 대학교육의 성과, 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대학의 책임, 대학졸업후 취업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대학이 직면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대학교육이 변화하거나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 실제로 체육계열 전공자의 취업현황자료에 의하면, 2010년 45.5%로 대학 전체평균 51.5%보다 낮으며, 2014년도 예체능계 취업률은 44.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취업자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종사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

1990년대 후반부터 고등교육 개혁을 착수하고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으며[10,11], 정부와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는 역량제고에 관심을 가졌다[12,13,14,15]. 즉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조직구성원의 역량에 좌우되고, 시장에서 인식되는 가치는 인적자원의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16,17].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규제, 거버넌스, 재정 및 평가 등 고등교육의 거시적 주제를 분석 축으로 삼아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의 관심이 교육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으나[18,19], 대학의 체육계열 전공자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는 연구내용과 관심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식기반사회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으며, 선진국가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20,21]. 체육분야에서도 양적투입에 의한 성장에서 인적자원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인적자원의 양성, 배치 및 활용에 많은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육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재현황 파악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인재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포괄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뢰성 높은 기초 통계 분석에 필요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자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

비록 체육부에서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연구자와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인적자원 육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지만[22,23,24], 체육 및 스포츠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초자료가 요구된다. 특히, 인력양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업이 아니며 현재의 인력실태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인력수용 및 공급전망을 반영해야 되는 단계적 과제이기 때문에 꾸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체육관련학 전공자의 역량 및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내용은 체육계열 전공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질문지를 통한 체육관련학 전공자의 역량분석, 기존 자료를 토대로 체육관련학 전공자의 노동시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연구방법은 기존 자료를 재분석하는 방법과 조사방법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기존자료의 재분석

대학의 체육계열 입학자의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활용하였다. 체육계열 입학자의 역량 분석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하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별로 수학능력시험 성적 공시가 의무화 되어 공개하고 있으나, 그 표시 방법은 대학별로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으로 각기 표시하는 등 대학별 사정에 따

라 달리 표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교육적 이념에 따라 첨예한 사회적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이 정보를 공시한 자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분석 기준으로 정하였다. 비록 대학입학 전형 방법이 다양하며, 평가내용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외에 학생부 기록과 실기시험, 경기실적 등이 있지만, 분석내용의 일반화를 위해 체육계열 입학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체육계열 전공자의 취업과 관련된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체육계열 전공자의 직업, 취업, 고용 등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2.2 설문조사

2.2.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체육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표집은 확률표본추출법의 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을 위해 모집단의 범위를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권역별로 4년제 대학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별로 체육계열 학과를 무작위로 선정한 결과, 부산지역에서 4개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4개학과, 경북지역의 3개학과, 충청지역의 3개학과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학과별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를 섭외하여 그 강의 시간의 학생들을 전원 조사하는 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대학의 교수 및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3개 대학이 탈락되었으며, 총 7개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의 전공 학생이 최종 대상이 되었다.

총 600명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으나, 545부가 수거되었으며,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을 제외한 53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방법은 훈련된 조사원이 강의시간에 설문지를 갖고 가서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자기 기록한 후 다시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는 2014년 3월에서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여학생 148명(26.7%), 남학생 406명(73.3%)이고, 평균 연령은 21.01세로 나타났다.

2.2.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체육계열 전공자의 역량진단 척도 구성을 수행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자

는 이진남[25]의 역량강화, 고재성[26]의 취업역량에 대한 연구 결과, 정윤경 등[27]은 직업전망 지표 등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체육계열 전공자의 역량진단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역량진단 척도는 전공자의 역량 개념을 인지력(기억, 표현능력, 응용, 분석력), 사회성, 경영(무형 및 유형자원 관리), 신체적 능력(건강 및 스포츠수행기술), 정서적 능력이라는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응답형태는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역량진단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보장을 위해 개념 타당도와 실험 타당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력, 기술과 지식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기에 개념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의 체육학 또는 스포츠관련학 교수 5명과 심도 있는 논의와 평가를 통하여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을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의 체육계열 전공자의 역량진단 척도는 충분한 개념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적합한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구성 타당도가 요구되어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 개념이 제대로 측정되는가를 보는 것으로 보통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다[28,29].

요인분석의 모형을 선정하는 분석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순목[30]의 결정방법을 따랐다. 또한 요인 회전 방식으로는 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0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사각 회전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항 모두가 대학의 체육계열 전공자의 역량에 관한 것으로 문항간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추출된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간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사각 회전방법을 선택하였다[28]. 체육계열 전공자의 역량진단 척도 31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과 사각 회전을 한 결과, 5개요인의 안정된 모형으로 나타났다. 요인 I은 신체적능력으로 민첩성, 반응력, 평형성, 협응력, 심폐지구력 등으로 구성되었고 고유값은 11.314이며, 전체 변량에 대하여 32.32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요인 II는 인지능력으로 기억, 이해, 표현, 의사결정, 응용, 사고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유값은 3.094이며 전체 변량에 대하여 8.839%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요인 III은 사회성 영역으로 설득, 합의점, 적절한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고유값은 1.614이며, 전체 변량에 대하여 4.61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요인IV는

경영능력 영역으로 시간, 회계, 동기부여,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고유값이 1.418이고, 전체변량에 대하여 4.052%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요인 V는 정서 영역으로 자기인식, 목표달성, 감정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고유값은 1.223이며, 전체변량에 대하여 3.494%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5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53.320%였으며, 사각회전 후 요인구조는 Table 1과 같다.

역량진단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측정도구의 동일성을 측정하는 것을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 검증결과인 Cronbach's α 계수값은 신채능력이 .8943, 인지능력은 .8369, 사회적능력은 .8539

경영능력은 .7935, 정서 및 감성능력은 .7952로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2.3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일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하였으며, 배경변인(성별, 국립과 사립 구분, 대학의 소재)에 따른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Table 1. Factor matrix in oblique rotation of competences diagnostic tool.

Item	Factor loading				
	1	2	3	4	5
34. agility ability	.791	6.974E-02	.301	7.795E-02	9.113E-02
31. using body effectively	.782	.116	.202	6.063E-02	.124
33. eye-hand coordination	.753	.108	.154	5.845E-02	9.382E-02
32. reaction ability	.746	.134	.269	7.192E-02	.111
35. balance ability	.744	2.898E-02	.243	.168	.158
30. cardiovascular fitness	.710	.169	7.378E-02	2.712E-02	8.484E-02
29. flexibility	.652	.231	5.302E-02	5.816E-02	2.283E-03
3. comprehensive ability	5.699E-02	.681	.167	8.930E-02	9.066E-02
2. writing	8.210E-02	.677	.206	.182	.153
4. convey knowledge	.231	.643	5.813E-02	.213	.104
9. understanding meaning	.137	.633	.209	.188	.202
1. making question appropriately	.207	.588	.329	.113	7.701E-02
6. making decision	.130	.577	.298	.267	8.413E-02
7. application	5.531E-02	.472	-8.649E-02	.172	.269
5. memory	.165	.469	.233	.228	2.370E-03
8. focusing	9.435E-02	.428	.157	.241	.219
13. consensus	.218	.190	.685	.100	.249
10. responding to other's behaviour	.317	.279	.678	6.241E-02	6.325E-02
15. persuasion	.240	.150	.668	.230	5.083E-02
14. partnership	.236	.215	.640	.111	.213
12. help	.132	.110	.616	9.340E-02	.337
10. understanding diversity	.245	.327	.587	.106	3.301E-02
22. techknowledge	5.468E-02	.193	-8.652E-02	.712	6.573E-02
21. computer skill	.169	.139	2.650E-02	.699	5.206E-03
17. accounting	-6.138E-02	.251	.169	.610	.238
20. using tool	.120	.156	.221	.596	.109
19. evaluation skill	.145	.198	.311	.520	5.429E-02
18. ability development	4.002E-02	.260	.311	.503	.236
16. time management	-3.915E-02	.232	5.201E-02	.494	.411
24. voluntary service	-8.130E-02	.137	2.073E-02	.157	.721
28. positive interaction	.268	.271	.245	9.993E-02	.583
25. self control	.263	.160	.362	9.910E-02	.574
26. new experience	.277	6.158E-02	.282	8.837E-02	.538
23. achieving goal	.322	.332	.110	.314	.452
27. self awareness ability	.271	.288	.335	.134	.437
eigenvalue	11.314	3.094	1.614	1.418	1.223
% of variance	32.325	8.839	4.610	4.052	3.494
cumulative variance	32.325	41.164	45.774	49.826	53.320

3. 결과분석 및 논의

3.1 체육계열 입학자의 대학수학능력 분석

3.1.1 체육관련학 전공자는 어떻게 선발되는가?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 온 대학입학시험정책은 대학별단독고사(1945년 - 1968년) → 예비고사(1969년 - 1981년) → 학력고사(1982년 - 1993년) → 수능시험(1994년 - 현재)으로 변천해 왔다. 대학입학시험정책의 변화는 정부의 관여 축소,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둔 시험 방향과 내용이 핵심이 되며,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억제, 학생의 시험 부담 경감 등의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대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대학수학능력시험(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대학별 고사(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등),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한다.

전형유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전형은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특별전형은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체육계열학과의 모집방법은 내신, 수학능력시험, 면접, 실기 등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반영비율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학능력, 실기, 학생부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서울여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80%로, 성신여대는 70%로, 세종대는 50%로, 가천대는 70%로, 삼육대는 50%로 증가시킨 반면에 실기능력의 반영 비율을 줄였다. 또한 실기능력시험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종목과 선택종목으로 구분하여 심폐지구력의 오래달리기에서부터

스포츠종목에 이르기 까지 시행종목이 여러 종목이었으나 최근에는 3-4종목으로 축소하여 시행하는 추세이다. 체육계열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실기능력의 비중을 줄이며, 실기시험 종목수를 줄이고 난이도를 낮추는 추세다.

또한, 체육계열 입학전형의 변화로 두드러진 현상은 실기시험의 시행종목 수와 반영비율이 줄어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 체육계열학과에서 경기력 중심의 또는 실기능력 위주의 인적자원을 선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정보화 및 지식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스포츠분야의 산업화 및 과학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1.2 체육계열 입학자의 대학수학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9등급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사병들의 임무 부여를 위해 미 공군에서 개발한 평가 방식이다. 교육학적인 용어로 스탠인(stanine)방식이라고 부르며, 9개의 유사한 집단이 있다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형태로 수험생을 분류하고 배점하는 구조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대부분의 경우 정보공시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 대학의 많은 대학들은 지원자 및 경쟁율만을 공개하면서도 입학자의 수학능력 시험이나 내신등급을 상세히 공시하지 않았다. 2013학년도 정시모집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등급으로 공시한 각 학교별 자료를 분석해보면,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등급 분포는 평균 2.56등급에서 6.63등급에 이르기까지 학교별로 수학능력시험의 등급 분포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을 공시한 64개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중에서 수학능력시험 등급이 가장 좋게 나타난 학과는 경북대학교의 체육교육과로 2013학년도 정시모집의 수능등급이 2.56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시험 등급이 3등급에 분포된 11개 학과 중 5개 학과가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로 체육교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단국대, 원광대). 교원자격증이 부여되지 않는 체육계열학과에서 수학능력시험 등급이 3등급에 분포된 학과의 특성은 소재지가 수도권(세종대, 강남대, 삼육대, 단국대)이거나 대도시(부산대)

Table 2. College scholastic ability grade of physical education & recreation studies(2013).

University	Department	Grade	University	Department	Grade
Gyeongbuk Nat. Univ.	Physical Education	2.56	Changwon Nat. Univ.	Physical Education	4.73
			Hallym Univ.	Physical Education	4.74
DanKook Univ.	Physical Education	3.13	Chunbok	Sport Science	4.74
Sejong Univ.	Physical Education	3.30	Daegu Haany Univ.	Oriental Sports Medicine	4.75
Pusan Nat. Univ.	Sport Science	3.39	Pukyung Nat. Univ.	Marine Sports	4.75
Gyeongsang Nat. Univ.	Physical Education	3.77	Suwon Univ.	Sports & Leisure	4.8
Chonnam Nat. Univ.	Physical Education	3.80	Soonchunhyang Univ.	Sport & Leisure	4.8
Wonkwang Univ.	Physical Education	3.80	Hoseo Univ.	Physical Education	4.81
DanKook Univ.	Exercise Prescription and Rehabilitation	3.85	Ulsan Univ.	Sport Science	4.82
DanKook Univ.	Sports Management	3.86	Hannam Univ.	Sport & Leisure	4.82
Chonbuk	Physical Education	3.86	Chosun Univ.	Physical Education	4.98
Kangnam Univ.	Sport & Leisure studies	3.90	Donga Univ.	Sport & Leisure Studies	4.99
Sahmyook Univ.	Leisure & Sports	3.92	Hoseo Univ.	Sport & Leisure	5.01
Soonchunhyang Univ.	Sports Medicine	4.0	Kyungnam Univ.	Sport Science	5.10
Baekseok Univ.	Adapted Physical Education	4.06	Daegu Univ.	PE	5.11
Donga Univ.	Physical Education	4.09	Hoseo Univ.	Security Service Science	5.24
Suwon Univ.	Fitness Management	4.10	Daejin Univ.	Sport Science	5.30
Keyimyung Univ.	Sports Marketing	4.19	Baekseok Univ.	Sport Science	5.39
Dankook Univ.	Sport & Leisure	4.25	Daegu Univ.	Sport & Leisure	5.57
Namseoul Univ.	Sports Management	4.27	Gangeung-Wonju Univ.	Physical Education	5.66
Mokpo Nat. Univ.	Physical Education	4.28	Daegu Haany Univ.	Sport & Leisure	5.66
Sangmyung Univ.	Sport Industry	4.31	Daegu Haany Univ.	Silver Sport Industry	5.7
Chungnam Nat. Univ.	Physical Education	4.37	Wonkwang Univ.	Sport & Leisure	5.7
Kyungnam Univ.	Physical Education	4.40	Andong Nat. Univ.	Physical Education	5.73
Wonkwang Univ.	Sport Industry & Welfare	4.40	Daegu Univ.	Golf Industry	5.79
Catholic Kwandong Univ.	Physical Education	4.48	Seowon Univ.	Sports & Leisure	5.8
Baekseok Univ.	Sport & Leisure	4.50	Wonkwang Univ.	Sport Health Management	5.9
Seowon Univ.	Physical Education	4.5	Kyungsoo Univ.	Sports & Health	6.19
Soonchunhyang Univ.	Sport Science	4.5	Donga Univ.	Taekwondo studies	6.46
Namseoul Univ.	Health & Fitness management	4.53	Seowon Univ.	Clinical Kinesiology	6.5
Korea Maritime & Ocean Univ.	Ocean Physical Education	4.59	Hoseo Univ.	Golf	6.57
Chungnam Nat. Univ.	Sport Science	4.6	Chosun Univ.	Taekwondo	6.63
Donga Univ.	Coaching guidance	4.72			

에 자리한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4등급에 속한 체육계열학과는 32개이며, 수학능력시험 등급이 5등급에 분포된 체육계열학과는 15개이고, 6등급에 속한 학과는 5개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에 자리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부여되는 사범계열학과인 체육교육과는 다른 일반 체육관련 학과보다 상대적으로 수학능력시험 등급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좋은 인적자원이 관심을 갖는 요인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첫째, 졸업 후 체육교사로서 자격이 부여되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부여되는가이다. 둘째, 대학이 소재한 위치가 수도권에 속해있는가이다. 교원자격증 부여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라는 요소가 체육계열학과에 관심을 갖은 인적자원의 특성이 된다.

3.2 체육계열 전공자의 역량 분석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5점 평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능력은 3.30, 신체능력은 3.88, 사회성은 3.61, 경영능력은 3.21, 정서능력은 3.52로 나타났다[Table 3].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을 구성하는 5개요인 중 신체능력과 사회성이 보통 이상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능력, 인지능력, 경영능력은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능력[t(339.31)=2.173, p=.030], 신체능력[t(283.06)=4.893, p=.000], 경영능력[t(300.09)=2.727, p=.007] 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체육계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지능력, 신체능력, 경영능력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capability factors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Factor	N	M	SD
cognitive ability	535	3.3013	.5215
physical fitness	535	3.8800	.7165
social skill	535	3.6159	.6159
management skill	535	3.2113	.5779
emotional ability	535	3.5234	.5928

Table 4. Differences in capability factors by gender.

Factor	Male(393)	Female (142)	t(p)
	M(SD)	M(SD)	
cognitive ability	3.327(.555)	3.230(.407)	2.173(.030)
physical fitness	3.965(.726)	3.648(.635)	4.893(.000)
social skill	3.626(.640)	3.587(.546)	.706(.481)
management skill	3.248(.602)	3.108(.491)	2.727(.007)
emotional ability	3.545(.623)	3.464(.498)	1.555(.121)

지역별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능력, 경영능력, 정서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체능력(F=11.703, p=.001)과 사회성(F=3.235, p=.022)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사후검증을 통해 평균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산권대학생의 신체능력과 다른 권역 소재 대학생의 신체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성 영역의 평균에서는 경북권대학생과 부산권 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 analysis by regional groups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Factor	Kyungbook (133) (a)	Kwangwon (60) (b)	Pusan (190) (c)	Chungcheong (152) (d)	F(p)	post-hoc
	M(SD)	M(SD)	M(SD)	M(SD)		
cognitive ability	3.240 (.562)	3.268 (.544)	3.333 (.484)	3.327 (.521)	1.046 (.372)	
physical fitness	3.702 (.671)	3.788 (.671)	4.118 (.666)	3.777 (.759)	11.703 (.001)	c<a, b,d
social skill	3.516 (.646)	3.608 (.647)	3.720 (.602)	3.575 (.578)	3.235 (.022)	c<a
management skill	3.126 (.604)	3.254 (.548)	3.209 (.598)	3.269 (.538)	1.582 (.193)	
emotional ability	3.416 (.601)	3.533 (.677)	3.593 (.581)	3.526 (.555)	2.351 (.071)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이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의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능력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Table 6. Differences in capability between public college students and private college students

Factor	public college students(253)	private college students(282)	t(p)
	Mean(SD)	Mean(SD)	
cognitive ability	3.269(.514)	3.330(.527)	-1.353(.177)
physical fitness	3.859(.764)	3.900(.671)	-.653(.514)
social skill	3.594(.601)	3.635(.629)	-.773(.440)
management skill	3.220(.554)	3.203(.600)	.338(.736)
emotional ability	3.513(.562)	3.535(.619)	-.378(.705)

3.3 체육관련학 전공자의 노동시장 분석

3.3.1 체육계열 분야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1차 분류에서 체육분야의 직업은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 분야로 분류된다. 이를 토대로 2차 분류에서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며, 3차 분류에서 팀 감독 및 코치, 직업 운동선수, 심판 및 기록원, 스포츠지도자 및 강사, 기타 여가 및 스포츠관련 종사원으로 분류된다[8]. 또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수요에 적합하도록 각종 직무를 분류하였다. 이들이 분류한 직업분류는 대분류 7개, 중분류 24개, 소분류 119개, 세분류 392개로 구성되어 37개의 직업 명칭이 포함되는 등 스포츠산업의 분류에 따라 직업을 세분화하였다[Table 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종사자의 직업과 자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소개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관련 종사자의 직종은 32개이며, 이 중에서 체육 및 스포츠분야의 국가자격인 경기지도사 또는 생활체육지도사의 자격을 요하는 직종은 5개로 나타났다.

이용식[24]은 체육학 전공자의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직군을 분류하였는데, 크게 생산직군, 활용직군, 지원직군으로 구분하였다. 생산직군은 선수, 지도자, 심판, 구단 등 경기직군과 스포츠 경기 진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조직관리 직군의 일부가 포함된다. 활용직군은 미디어와 마케팅 직군이 포함되고, 스포츠산업 지원 직군으로는 경기단체, 체육시설, 스포츠용품, 체육행정 직군 등이 포함된다.

Table 7. Classification on types of profession in the field of sport & exercise[35].

Job	Cert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of velodrome cycling	national coaching certification	highschool
coaches	national coaching certification	college
velodrome cyclist	cyclist	highschool
horse racer		highschool
outrider		highschool
car racer		highschool
professional athlete		high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school teaching certification	college
referee	referee certification	highschool
recording staff		highschool
entertainment manager		highschool
riding master	national sports certification coaching in sports	highschool
athletic trainer	physical therapist	community college
sports instructor	national sports certification coaching in sports	community college
personal trainer	coaching in sports	community college
golf manager		highschool
caddy		highschool
cheerleader		highschool
guider		community college

박주한[31]은 체육계열 분야의 직종을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교수 및 교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체육단체 행정관리직, 스포츠기자, TV진행자 및 PD, 스포츠해설자 및 아나운서, 구단주 및 마케터(에이전트), 프로선수 및 코치, 각 종목 실기지도자, 스포츠센터시설경영관리자, 건강운동사 및 재활치료사, 선수트레이너(PT), 골프코스설계관리사, 스포츠시설 설계 및 건축사, 경기시설관리사, 스포츠이벤트관리사, 스포츠외교기관직원, 스포츠홍보 및 커뮤니케이션관리자, 노인 및 아동체육지도자, 스포츠심리상담사, 복지시설체육지도자, 레저프로그램기획전문가,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등이 있다.

대학에서 체육관련학을 전공하여 노동시장의 전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종과 직업에 대한 특징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스포츠산업을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건설 및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 시설분야의 직종, IT 및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스포츠 장비 및 용품분야의 직종, 대중매체분야의 직종, 건강 및 교육 분야의 인적서비스 직종에 이르기까지 체육 및 스

포츠분야의 직종을 융합 영역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과 연계하여 직업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직종에 비해 국가자격 취득자에 의한 무고용형 또는 면허형 직군이 약하다는데 있다. 대학에서 체육관련학을 전공하고, 이러한 전공에 기반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체육 관련 직종에 의무적으로 고용되거나 종사할 수 있는 면허형 직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데 있다.

3.3.2 체육계열 전공자의 취업역량 및 노동시장 진입 구조는?

체육 전공자 취업현황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체육 전공 응답자의 49.2%가 '다른 전공에 비해 체육 전공의 취업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적 평가가 높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16.4%인 것으로 나타나 체육 계열 졸업자들의 전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또한, 체육계열 전공자의 취업을 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박주한[32]은 체육계열 전공자의 정규직 취업률이 2008년 45.6%(비정규직 포함 82.7%)에서 2009년 30.8%(비정규직 포함 78.8%)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2014년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 조사에서는 50.2%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동시장의 안정적 진입은 쉽지 않으나 대학에서 체육관련학을 전공하여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접근법의 하나는 제도적 접근이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제도적 접근은 법으로 면허 또는 의무 고용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범계열의 체육교육 전공이다. 체육교육 전공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중등교원 임용시험 과정을 거쳐 체육 교사가 된다. 매년 채용인원의 변동에 따라 경쟁률(2011년은 30.256대 1, 2014년은 6.46대 1)에 차이가 있으나 체육전공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구조이다. 제도적 접근의 두번째는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의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지도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이다. 체육 및 스포츠분야의 국가자격은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이다. 국가자격 취득과 관련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8,9], 경기지도자는 1974년 양성을 시작한 이래 2012년 현재 1급 998명(남: 857명, 여:141명), 2급 27,544명(남: 23,444명, 여: 4100명) 등 총 28,542명(남: 24,301명, 여: 4,241명)의 경기지도자가 양성·배출되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1987년 양성을 시작한 이래 2012년 현재 1급 877명(남: 598명, 여: 279명), 2급 8,224명(남: 6,140명, 여: 2,084명), 3급 159,602명(남:120,237명, 여: 39,365명) 등 총 168,703명(남: 126,975명, 여: 41,728명)이 양성·배출되었다.

2012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체육지도자 1급 380명, 2급 1,135명, 3급 23,957명이 배치되어 총 25,422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9]. 배치인원 25,422명은 전국 시·군·구의 국민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체육회의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된 인원과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업의 종사자로 포함된 인원이다. 양성된 국가자격 취득자의 168,703명과 배치인원 25,422명의 고용비율이 15%에 이르는 이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어 국가자격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9]. 또한 체육관련 단체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 등의 체육관련 공공단체 5곳의 정규직원 979명 가운데 체육전공자는 167명으로 전체 인원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4].

체육 및 스포츠분야의 직종 중에서 체육교사, 체육공공기관 직원은 대체적으로 장래의 근무 희망직종에 속하는 안정된 직종이다. 이러한 직종도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자격에 의해 고용되는 직종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로 1년 단위 계약직 종사자이다. 대학에서 체육관련학을 전공하고 노동시장에서 전공관련 직종의 종사자들은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교사, 강사, 지도자, 퍼스널 트레이너 등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한 고용구조로 연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체육계열 전공자가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2013학년도 체육계열 입학자의 평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등급인 학교는 1개교이며, 3등급은 11개 학교가, 4등급은 32개교가, 5등급은 15개교가, 6등급은 5개교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일수록 또는 교원자격증이 부여되는 사범계열인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인지능력은 3.30, 신체능력은 3.88, 사회성은 3.61, 경영능력은 3.21, 정서능력은 3.52로 나타났으며, 신체능력과 사회성이 보통 이상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열 전공자의 고용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체육교사 또는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며, 전공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국가자격에 의해 고용되는 직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또는 학교 스포츠강사로 1년 단위 계약직 종사자이다. 마지막으로 강사, 지도자, 퍼스널 트레이너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종사자이다. 일반적으로 체육계열 전공자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체육관련학 전공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체육관련학 전공자도 일반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인지능력, 기술능력, 그리고 감성능력 등의 소양과 전문능력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1] H. Y. Oh, Analysis of the Change of University Hierarchy Structural,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4, 1, 181-201, 2007.
- [2] S. M. Jang, Economics of The University Education, Korean Labor Institut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2, 1, 47-79, 2002.
- [3] S. M. Jang, E. B. Kong, H. I. Lee, The Role of Education in Enhancing Nation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04.
- [4]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Statistics,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4.
- [5] C. S. Woo, H. M. Kim, A study on Manpower Training the Range of Optimum Size for The Higher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4.
- [6] J. W. Nam, M. H. Cho, W. D. Kwon, K. B. Goo, J. H. Seo, A Review of Human Resource and National Certificat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0, 97-106, 2010.
- [7] M. H. Cho, A Review of the National Coaching Certification for the Professionalization of Sport Coach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3,

- 51-61, 2008.
- [8] M. H. Cho, W. D. Kwon, Are the National Certifications of Sport and Recreation Moving into Professionaliz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6, 1, 15-25, 2011.
- [9] M. H. Cho, W. D. Kwon, A Review of Professionalization and National Certification relating to Physical Education & Sport Studies, *Korean Society of Sport Management*, 17, 1, 1-10, 2012.
- [10] H. S. Shin, *Reform Policy of Korean Higher Education*, Hakjisa, 2005.
- [11] J. Y. Choi, J. E. Chae, Y. I. Seo, H. R. Min, *Global Trend Analysis on Univeristy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olicy*,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1.
- [12] D'Aveni, R. A. *Hypercompeti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94.
- [13] Huisman, J. *Higher Education Policy: The evolution of a journal*. *Higher Education Policy*, 21, 3, 265 - 274, 2008.
DOI: <http://dx.doi.org/10.1057/hep.2008.6>
- [14] Nybom, T. *The Humboldt Legacy: Reflections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European University*. *Higher Education Policy*, 16(2), 141 - 159, 2003.
DOI: <http://dx.doi.org/10.1057/palgrave.hep.8300013>
- [15] Teichler, U. Arimoto, A. Cummings, WK. *The Changing Academic Profession: Major Findings of A Comparative Survey*. London, Springer, 2013.
DOI: <http://dx.doi.org/10.1007/978-94-007-6155-1>
- [16] Krücken, G. Meier, F. *Turning The University into An Organizational Actor*, in G. Drori, J. Meyer & H. Hwang (eds.) *Globalization & Organization: World Society and Organization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41 - 257, 2006.
- [17] Navarro, JR. Gallardo, FO. *A Model of Strategic Change: Universities and Dynamic Capabilities*. *Higher Education Policy*, 16(2), 199 - 212, 2003.
DOI: <http://dx.doi.org/10.1057/palgrave.hep.8300016>
- [18] K. B. Noh, *Policy Proposal for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Promotion*, Seoul: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09.
- [19] H. J. Jo, M. L. Kim & M. R. Eom, *An Investigation on Comparing Programs of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Universities*, *Korean Comparison Education Society*, 19, 2, 269-293, 2009.
- [20] Toma, JD. *Building Organizational Capacity: Strategic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 [21] Trow, M. *Managerialism and The Academic Profession: The Case of England*. *Higher Education Policy*, 7(2), 11 - 18, 1994.
DOI: <http://dx.doi.org/10.1057/hep.1994.13>
- [22] Y. O. Park, H. K. Lee, T. Y. Han, M. H. Kwon, J. H. Sin, S. J. Lee, S. D. Lee, *The Sport-Related Job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Induced Effect of Sport Industry*, Korean Sports Promotion Foundation, 2005.
- [2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rveying Demand for Sport Industry Professional Manpower*, Korean Labor Institute, 2008.
- [24] Y. S. Lee, *Job Outlooks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Students*, *Sports Science*, 16-21, 2009.
- [25] K. N. Lee, *An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For Developing Employment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 3, 199-225, 2012.
- [26] J. S. Go, G. N. Lee, S. N. Kim, J. H. Byun, *A Study on Defining the Concept and Estimating the Weight of Employment Competency for the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 2, 17-42.
- [27] Y. K. Jung, S. K. Han, H. Y. Oh, H. J. Jang & N. R. Kim, *Development of Index for KRIVET Career Prospec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8.
- [28] O. K. Yang, *A Development of a Scale for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 157-198, 1994.
- [29] Rubin, A. Babbie, 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9.
- [30] S. M. Lee, *Factor Analysis I*, Hakjisa, 1995.
- [31] N. K. Cho, *Physical Education-Related Studies` Futuristic Admission according to the Desired Human Resource Imag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6, 4, 173-186, 2012.
- [32] J. H. Park, *Career Invigoration Measures for Students Majoring in Sports,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9, 2, 189-206, 2011.
- [33] J. A. Ryu, E. A. Ko, J. Park, M. S. Oh, *Gender Human Resources Database in Tourism and Sports sectors by gender*, Korean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0.
- [34]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orean Vocation Dictionary*,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2.

조 민 행(Min-Haeng Ch0)

[정회원]



- 2000년 5월 : 뉴멕시코주립대학교 (체육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체육 및 스포츠경영

고 의 석(Wi-Sug Ko)

[정회원]



- 2000년 5월 :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체육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국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관심분야>
운동과 인지, 심리기술

한 건 수(Gun-Soo Han)

[정회원]



- 2010년 8월 : 아칸사스주립대학교 (체육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운동생리학